

2. 마을의 역사

1) 사기점(沙器店)

정선 전씨가 처음 개척했다고 전해지며, 과거 사기그릇을 만들던 곳이다. 현재 4가구가 거주하며 2곳의 성황목이 있다.

2) 안말래(內斗川)

600년경에 심씨(沈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여 말래(馬來)라 하였다. 마을은 서낭골과 밤나무골로 나뉜다. 마을 형국은 ‘부채살 형국’으로 여기며 주민들은 ‘큰 인물은 나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는 딱 좋은 곳’으로 여긴다. 산림청이 마을 서북쪽의 바른골 일대에 산불 진화용 소규모 댐을 조성했다. 마을 앞의 건넛들을 지나 금강송면 보부내마을로 이어진다.

3) 장평(長坪)

10여 가구로 형성된 마을로 과거 동해안과 영남내륙을 잇는 십이령길을 통한 선질군들의 왕래가 활발했을 당시 활기를 띠던 주막촌이다. ‘들이 길다’ 하여 장평(長坪)이라고 불렀다 전한다.

3. 가구 분포

총 30세대가 거주하며 정선 전씨(旌善全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영해 박씨(寧海朴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수백 년이 된 노송(老松)과 굴참나무가 당집과 함께 있는 성황당이 2개소 있다.

제16절 부구1리(富邱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봉산(鷹峰山) 지맥(地脈)이 동해안에 접하여 동재곶(東峴串)을 이루고, 서쪽은

뒷골 송골목(項)을 넘어 부구2리와 접하였으며, 남쪽은 부구천(富邱川)을 건너 한울원자력발전소와 배골재(梨項嶺)를 경계하여 신화1리가 있다. 북쪽은 만호곡(萬戶谷)과 오목골이 있고 나곡1리 석호리(石湖里)가 있다. 그리고 뒷골들 관평(官坪)과 관앞들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7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북면사무소 앞에 2014년에 건립된 북면보건지소가 있다. 1979년부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부구리 도심지는 음식점과 주점, 숙박업소 등 상가가 발달했으며, 부구초등학교 앞 칠보산에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679년경에 유씨(劉氏), 최씨(崔氏), 주씨(朱氏)의 삼성(三姓)이 마을을 개척(開拓)할 때 마을 안에 거북과 같은 바위가 있으므로 신령(神靈)님이 내린 바위라 하여 마을 이름을 영구리(靈龜里)라 하였다. 이후 1914년에 토지세부측량(土地細部測量) 당시 부구천(富邱川) 건너에 있는 염전리(鹽田里)의 염(鹽)자와 구(邱)자로 표기(表記)하여, 염구리(鹽邱里)라고 불렀으며, 행정구역 개편(改編) 당시 흥부(興富)의 부(富)자와 염구(鹽邱)의 구(邱)자를 합하여 부구(富邱)라 표기하였다.

1) 달동네

옛 흥부장터에 위치한 자연부락으로 칠보산(七寶山) 중턱에 있으며 수십 년 전 을축년(乙丑年) 홍수로 장터가 옮겨지고 산 중턱에 한두 집이 거주했다. 이어 1979년 한울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염전독의 주민들이 대거 달동네로 집단이주하였다. 1994년 무렵에 택지로 조성되었으며, 마을 입구에 ‘4·13흥부만세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2) 염전(鹽田)

부구천(富邱川) 건너편 해변 백사장(白沙場)에 있는 자연부락으로 염전(鹽田)과 과수원이 성했다. 지금은 이곳에 한울원자력발전소가 건설, 가동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475세대가 거주하며 안동 김씨(安東金氏)와 평창 이씨(平昌李氏)가 주종을 이루며 각 성씨가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관평(官坪)

1700년경에 관청이 있었다 하여 이곳을 관평(官坪)이라 부르며 관평(官坪) 앞들을 관앞들이라 부른다.

2) 땅골

오늘날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原子爐)가 설치된 곳을 말한다.

3) 칠보산(七寶山)

태백준령(太白山嶺)이 뺏어내려 이루어진 산으로 ‘매가 보배를 안고 하늘을 나는 형국’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며, 7개의 보물이 내장되어 있다고 여겼다. 칠보는 인재등과(人材登科)의 보(寶), 충절(忠節)의 보(寶), 백자천손(百子千孫)의 보(寶), 교역(交易)의 보(寶), 어족(魚族)의 보(寶), 육축(育畜)의 보(寶), 온화(溫和)의 보(寶)를 뜻한다고 전한다. 칠보산을 중심으로 흥부장터가 번성하였으며, 영동지방의 대표적 장시로 이름이 높았다. 특히 흥부천 너머에 발달한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토염]은 동해안에서 이름나 강릉지방에서 이를 구입하기 위해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또 봉화와 영주 등 영남내륙을 잇는 물류 유통로인 ‘십이령바지계길’의 출발지였다. 또한 을사늑약 이후 관동의병(關東義兵)의 전적지(戰迹地)이며, 3·1만세운동 당시 대규모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곳이다. 1994년 무렵 칠보산이 해체되고 대형상가와 주거단지가 조성되었다.

4) 흥부장터 기미만세 기념비

북면기미만세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 칠보산 흥부장터에서 일어난 흥부기미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1995년 8월 15일에 조성하였다.

제17절 부구2리(富邱二里)[속명: 흥부(興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송골목(項) 옛 장터[七寶山 앞]가 있으며 부구1리와 접하고, 서쪽은 도록곡(道祿谷)의 시냇물을 경계로 부구3리와 인접하며, 남쪽은 부구천(富邱川), 큰들 남산(南山)과 불